
 인천광역시		<b>보 도 자 료</b>			
		배포일자	2022년 9월 13일(화) 총 4매		
담당 부서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자	• 시민참여팀장 • 담당자	최재필 ☎440-2416 조영희 ☎440-2418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열린시장실’ 1호 공식 답변, 유정복 시장 시민만나 직접 밝혀

- 13일,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찾아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 이어 -
- 유시장 “제2경인선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인천 의지 확고” 강조 -
- 시민께 시장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성을 강화한 열린 시장실로 운영 -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13일,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개설한 「온라인 열린시장실」 시민의견 중 ‘제2경인선 조속 추진’ 건에 대해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답변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을 게시한 서창지구자치연합 대표 등 관련 시민 20여 명과 서창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난 유정복 시장은 ‘시민의 친구 유정복’으로서 시민들과 격의 없이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시민의견은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관계없이 제2경인선을 건설할 수 있도록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제2경인선 사업 재기획 용역’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한 공감이가 3,000여 건에 이르렀다.

이날 답변에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균형’, ‘창조’, ‘소통’ 3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300만 시민의견을 더 열심히 경청하고 소통

하기 위해 「온라인 열린시장실」을 개설했다고 밝히며 답변을 시작했다.

유 시장은 “제2경인선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인천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토부는 물론이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안 추진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재기획 용역 결과도 국토부에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사업의 변경 추진 여부는 국토부의 권한이지만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도 결국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인천발 KTX를 추진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2경인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현장에서 직접 대화하는 것이 민선 8기 소통의 기본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은 온라인을 통한 다수 시민의견 수렴과 수요자 중심의 오프라인 현장소통을 통합해 민선 8기 들어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시민의 의견에 3천명 이상이 공감하면 공식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답변내용은 ‘인천은 소통이가득’ 사이트 (<http://cool.incheon.go.kr/>) 열린시장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4:00)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붙임> 답변원고

## 온라인 열린시장실 공식답변(‘22. 9. 13.)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입니다.  
민선8기 인천시정부는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온라인 열린시장실을 개설하였습니다.

운영 두달만에 무려 3만 여명의 시민이 방문해주셨고,  
200여 건의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3천분 이상의 시민께서 공감해주신  
‘제2경인선 조속 추진’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인천은 제2경인선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는 물론이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사업 재기획(플랜B)노선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경인선’은 우리 인천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연수구 청학동에서 경기 광명을 거쳐 서울 노량진까지  
이어지는 총 37.3km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광명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도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제2경인선 추진이 주민의 오래된 바람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한 일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인천은 지역 정치권과 함께 원안 노선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원안 추진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한  
사업 재기획 용역(플랜B노선)결과도 국토부에 강력히 전달할 것입니다.

사업의 변경 추진 여부는 국토부의 권한이지만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도 결국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함입니다.

지역과 주민의 바람을 넘어선 정치와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시장으로 출마하며 했던 제1호 공약은  
당시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인천발 KTX였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 했지만 2년 만에 예산 확보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저력으로 만들어 낸 기적이자 영광입니다.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천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인천의 강력한 의지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